

# 말 너머 진심을 읽다... '이 사랑 통역 되나요?'

김선호·고윤정 주연

넷플릭스 시리즈

홍자매가 해석한

'통역'의 다른 의미

언어는 소통의 도구이지만, 때로는 가장 거대한 장벽이 되기도 한다. 넷플릭스가 2026년 새해에 처음으로 선보인 새 오리지널 시리즈 '이 사랑 통역 되나요?'는 바로 이 역설적인 지점에서 출발한다.

'호텔엘루나', '주군의 태양' 등을 집필한 홍자매(홍정은·홍미란) 작가의 신작이자 김선호·고윤정 조합의 로맨스물로 공개 전부터 화제를 모은 이 작품은 극 중 다국어 통역사 주호진(김선호 분)과 글로벌 톱스타 차무희(고윤정)가 서로의 언어를 해석하고, 오해하고, 끝내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렸다.

영화 한 편으로 하루 아침에 톱스타가 된 무희는 일본의 유명배우 구로사와 하로(후쿠시 소타)와 함께 캐나다·이탈리아를 함께 여행하는 데 이어 예능에 출연하게 되고, 이를 사이의 통역은 6개 국어에 능통한 호진이 맡게 된다.

무희와 호진은 이미 우연히 몇 번 만난 사이다. 바쁜 날 전 연인을 찾으려 일본까지 헤아렸다가 호진에게 속사정을 들켜버린 무희와, 짜사랑과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찾



'이 사랑 통역 되나요?' 장면 일부.

았다가 연예인의 SNS에 얼굴이 박제돼버린 호진.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서로 말 못 할 비밀을 하나씩 공유한 채 시작된다.

직선의 언어로 말하는 남자와 곡선의 언어로 말하는 여자. 이 작품은 두 남녀 사이 '통역'의 부재로 생기는 오해와 갈등을 촘촘하게 엮어낸다. 작품은 중반부로 접어들며 단순한 연애사를 넘어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 집중한다.

통역사로서 타인의 말을 전달하는 것에만 급급하던 호진은 무희를 보며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뾰족했던 자신의 말을 다듬기 시작한다.

무희 역시 숨기고 싶었던 불행한

과거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호진에게 털어놓게 되면서,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던 트라우마를 깨기 위해 몸부림을 지기 시작한다.

일본에서부터 캐나다, 이탈리아, 한국까지 총 4개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로케이션 촬영은 시청자들에게 보는 즐거움도 선사한다.

노을과 바다, 기차 소리가 어우러진 일본 가마쿠라의 작은 마을과, 하늘 위로 신비로운 오로라가 펼쳐지는 캐나다의 호수, 로맨틱한

분위기가 가득한 이탈리아의 오래된 성까지 다양한 공간에서 켜켜이 쌓여가는 두 인물의 서사는 이들의

만남을 우연이 아닌 운명으로 만든다. 마치 연극 무대를 묘사한 듯한

세트와 스포트라이트 조명, 흑백 효과 등을 활용한 감각적인 연출 또한 보는 재미를 더한다.

'이 사랑 통역 되나요?'의 두 주인공이 끝내 서로의 진심과 각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장면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진정한 소통'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묵직한 감동을 낸다.

"세상에 다른 언어가 몇 개인 줄 아나? 세상 모든 사람의 수만큼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각자 자기 말을 하고, 서로 못 알아듣는 거야."

호진과 무희가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던졌지만 전달되지 않았던, "사랑"이라는 말의 수만 가지 번역본이 오래도록 여운으로 남는다. 연합뉴스

SBS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 3.7% 출발

인간이 되기 싫은 구미호... 김혜윤·로문의 판타지 로맨스

배우 김혜윤과 로문의 판타지 로맨스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이 3% 대 시청률로 닷을 올렸다.

17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SBS 새 금토드라마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 1회 시청률은 3.7%(전국 기준)로 집계됐다.

첫 방송에서는 인간이 되기 싫어하는 'MZ 구미호' 은호(김혜윤 분)와 운명이 뒤바뀐 축구선수 강시열(로문)의 악연 같은 첫 만남이 그려졌다.

은호는 수백 년간 쌓은 도력을 대가를 받고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을 하지만,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 선행만큼은 피하며 살아왔다.

그러던 은호 앞에 우연히 청소년 축구 유망주인 현우석(장동주)과 가난한 축구 천재 시열이 나타나고, 은호는 둘 중 우석의 성공한 미래를 보게 된다.

하지만 이내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우석이 차에 치여 쓰러지고, 시열은 진범의 얼굴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때 은호는 진범이었던 재벌 4세 이윤(최승윤)에게 소환된다. 은호에게 시열의 기억을 지워달라는 의뢰를 하기 위해서였다.



장면 일부. 넷플릭스 제공

은호는 돈을 두 배로 주겠다는 이윤의 제안에 시열을 찾아가지만, 이번엔 은호의 눈앞에 시열의 성공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내 은호는 우석과 시열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이 작품은 기존 구미호 설화를 비튼 신선한 설정과 '인간 비타민'이라는 수식어를 지닌 김혜윤 특유의 통통 뛰는 연기로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었다.

이어지는 회차에서는 운명이 바뀐 시열과 은호가 본격적으로 얹히기 시작하는 과정이 그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 BTS 정규 5집 '아리랑'

3월 발매... 14곡 수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에서 제목을 딴 새 앨범 '아리랑' (ARIRANG)을 발표한다.

16일 속소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이날 0시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오는 3월 20일 발매되는 정규 5집 제목 '아리랑'을 공개했다.

RM은 이날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진행한 위버스 라이브 방송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것을 넣으면 좋겠다" 하다가 아리랑이라는 키워드를 불러왔다"며 "오랜만에 앨범을 내면서 그동안 겪은 희로애락을 잘

묶을 수 있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5집은 이들이 지난 2022년 6월 앤솔러지(선집) 앨범 '프루프' (Proof) 이후 3년 9개월 만에 발매하는 신보로 수록곡은 총 14곡이 실린다.

방탄소년단은 한국에서 출발한 그룹이라는 팀의 정체성,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리움과 깊은 사랑을 이번 앨범에 담았다. 제목인 '아리랑'은 한국 대표 민요이자 멤버들이 신보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를 상징적으로 담아낸 단어라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멤버들은 라이브 방송에서 "각자 솔로도 했고, (앨범에 관해) 무엇을 예측하든 다를 것"이라며 "동시에 우리다움이 가미돼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음악"이라고 귀띔했다. 연합뉴스

## '은퇴 선언' 임재범 공로패 수상... "대중음악에 혼신"

### 마지막 전국투어 현장서 문체부 장관 직접 전달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은퇴를 선언하고 마지막 전국투어 중인 가수 임재범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gt;&gt;사진

문체부는 최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데뷔 40주년 전국

투어 '나는 임재범이다' 현장을 찾아 임재범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장관은 "독보적인 예술가 정신과 울림을 주는 목소리로 대중음악 발전에 혁신했다"며 "특히 수많은 명곡을 통해 국민의 삶에 깊은 위로를 전하고, 대중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난 1986년 밴드 시나위 1집으

로 데뷔한 임재범은 거친 목소리를 내세워 '너를 위해', '비상', '고해',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등 여러 히트곡을 냈다.

지난해 11월 29일 데뷔 40주년 전국투어 콘서트를 시작한 임재범은 이달 4일 "이번 전국투어를 끝으로 무대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5월까지 수원, 일산, 광주 등지에서 마지막 전국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 오늘의 운세 19일



김종상 지단(知旦) 작병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 (010-5233-6136)

36년 과다한 기대나 행동은 금물. 경쟁자가 생기고 질투의 대상이 된다. 48년 대인관계의 회합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라. 60년 문서서 이사, 매매 등이 길하고 이익이 있다. 72년 모임 또는 음주에 신경을 쓰 것. 84년 격려와 충고를 전심으로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

37년 긍정적 생각이 힘이 된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49년 문서관련 재운이 있으니 계약성사 매매 송사에 기쁨이 있다. 61년 자기 세력이 커지니 마음먹은 일은 자신을 갖고 추진하라. 73년 직장인은 화합을 유도하는 리더십이 필요. 85년 마음먹은 것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

38년 생각지 않은 기쁜 소식이나 선악이 생긴다. 50년 활동성은 왕성해지나 지금 지루다. 62년 동업자나 협조자가 있으나 의사심을 갖는 것은 화가 될 수 있다. 74년 승진의 기회가 오거나 좋은 위치로 움직일 수 있다. 86년 새로운 도전하거나 변동을 원한다.

39년 해결되지 않던 일이나 주변의 도움으로 일어 풀려나간다. 51년 일의 성과가 미약하거나 질투자의 등장으로 경쟁의 기복이 있다. 63년 부부간 다툼과 험들어지니 협력이 필요하고 먼저 회복. 75년 상대방과 경쟁 시 미워하는 마음보다 선의에 경쟁을 하라. 87년 전문성을 갖거나 전문가로 거듭나.

40년 노력한 만큼의 즐거움과 이익이 온다. 52년 여행이나 외출할 일이 생기거나 문지근이 문제로 일어난다. 64년 현재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육심내면 다 있는 경우가 온다. 76년 밝은 표정으로 상사를 대하면 좋은 기운이 오고 인정받는다. 88년 원하고 희망하는 취업이나 만남은 아니지만 이뤄진다. 최선을 다하라.

41년 배신 또는 금전적 손해가 따르니 주의. 53년 내실을 기하는데 집중해야. 기장안에서는 부부간 의견차이로 불화. 65년 웃사람이나 부모님의 소식이 있으나 분주해지고 고민만 가득. 77년 사소한 시비나 언쟁이 확대되는 격으로 만나 조심. 89년 사사로운 경쟁이 있다면 풀어야 안풀면 골이 깊어진다.



42년 동업자나 거래처에서 내게 도움을 청하면 오늘은 정중히 거절하는 지혜가 필요. 54년 신중합과 여유를 가져야 손해가 적으니, 급할수록 돌아서라. 66년 사소한 실수가 비웃음이 될 수 있다. 78년 재물운이 가득하고 듭는 이가 있어 만사행통. 90년 독단적 행동은 자제하고 주변과 협동하는 게 좋다.



43년 매출이 증가되나 일시적인 현상. 이익은 미약하다. 55년 금전지출 시비가 발생하니 돈거래는 신중하는 것이 좋다. 67년 직장인은 명예 또는 상사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고가집수에 반영됨. 79년 여행이나 외출할 일이 생긴다. 이성교제 길. 91년 가벼운 운동은 정신을 맑게 해주는 보자.



44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영업하면 이익이 있다. 56년 재물운이 있지만 투기는 신중해야 한다. 68년 친하던 친구와 사소한 일로 불화하거나 이성간에 의견차이로 치화될 수도 있다. 80년 일상의 일한 결과를 얻게 되며 선배나 윗분의 칭찬이 많다. 92년 문서계약 매매 거래가 길다. 과음 주의.



45년 할 일이 아직 산재돼 있어 몸이 분주하다. 57년 계산상 작은 오류가 생기거나 머뭇거리다 손재가 발생하니 기회를 잘 활용할 것. 69년 할 일이 늘어나니 몸이 따르지 않고 마음만 바쁘다. 89년 집안에서 결혼에 관한 문제로 고민하고 간다. 부모님과 상의도 필요. 93년 과로 또는 음주로 건강에 적신호가 오니 조심.



46년 사회생활이나 가정적으로 변동의 근심수가 오니 배려하는 마음을 먼저 갖자. 58년 남편 또는 경제적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된다. 70년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일을 하거나 역할을 해야 한다. 82년 이성교제의 만남에 다소 불협화음이 있으니 긍정적 화법이 필요. 94년 형제의 문제로 변동, 변화가 온다.



47년 주변 오는 것이 있으니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행운. 59년 자금문제로 다툼이 생기니 주의. 가정의 화목은 믿음과 배려에서 출발. 71년 자녀나 종업원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교유이 우선. 83년 대인관계를 위해 내가 먼저 마음을 열자. 95년 오고 가는 정속에 믿음이 오가니 대화가 필요하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